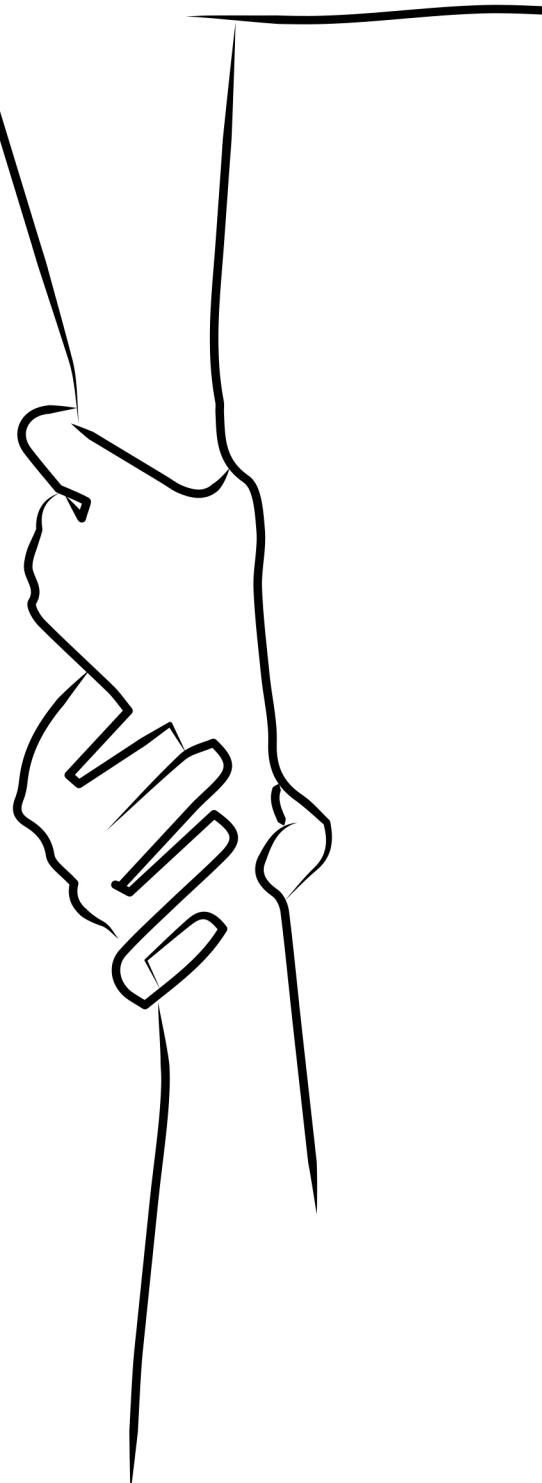




2025년 11월

소그룹 인도자, 참가자 공용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갈6:2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 좋은 가정은 전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2. 가정에서 흔히 쓰지만 결코 효과 없는 두 가지 ◆

2025년 11월 | 캔사스중앙교회 | 소그룹 모임

### ▶ 가볍게 근황토크

\* 다음 질문 중에 하나를 택해서 나눠보도록 합니다.

- 일상에서 하나님을 특별히 더 가까이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 최근에 '작은 기적'이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다'고 느낀 일이 있었다면?
- 요즘 자주 드리는 짧은 기도 한 문장이 있다면?
- 이번 주에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성경 구절이나 묵상 포인트가 있다면?

### ▶ 오늘의 성경 읽기 \_ 신명기 6:7

- 본문을 찾아 함께 읽도록 합니다.

### ▶ in & out – 말씀 안으로 & 삶으로

좋은 가정은 대화가 많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신명기 6:7

가정에서 중요한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 집에 있을 때나, 산책하거나 쉴 때나 여행할 때,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도, 그리고 아침 식탁에서도 대화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위 성경구절을 읽을 때 아래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좋은 가정이 될 수 없단다”

### 좋은 가정으로 서로 성장시키는 두 가지 방법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하나는 '본보기'가 되는 것이고,
- 또 하나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모범과 대화, 이 두 가지가 가족의 성장을 이끄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대화를 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지만 절대 효과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 **1) 첫 번째는 ‘비판(criticism)’입니다.**

비판은 사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좀 따끔하게 말해야 정신 차리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담 아래로 그렇게 사람이 바뀐 역사가 없습니다.

‘나부터’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잔소리, 정죄, 비난** — 이것들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은 그 자체로 ‘무엇을 하지 말라’는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그러면 비판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부정적인 이미지는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남편을 비판하고, 아내를 비판하고, 자녀를 비판할 때**

그 자리에서 “그래, 내가 틀렸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점점 낙심하게 됩니다.**

오히려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실패한다”는 낙인을 새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 “이젠 포기할래요.”
- “어차피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 “나는 엄마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아이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게으를 수 있는지 보여줄게.”
- “내가 얼마나 무책임할 수 있는지 한 번 보라고.”

**비판은 사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비판은 실패자를 만듭니다.

**만약 매주 설교를 할 때,**

“이번 주는 당신이 지은 죄를 다 이야기해봅시다. 이것도 죄, 저것도 죄, 다 죄에요.”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3시간(?) 설교도 넉넉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무런 변화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보통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꿀 것인가’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 “나쁜 걸 멈춘다”가 아니라 “좋은 것을 시작한다”입니다.

그래서 비판 대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할까 함이라  
… 골로새서 3:21

---

자녀를, 배우자를, 서로를 향한 비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판은 그저 관계를 깎아내릴 뿐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2. 두 번째로 비교(comparing)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누구와 비교하는 순간, 이미 실수를 저지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두를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비교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 “왜 형처럼 못 하니?”
- “왜 다른 남편처럼 못 해?”
- “왜 그 사람 아내처럼 못 하니?”
- “왜 옆집 애처럼 공부 안 해?”

이런 말을 들은 사람은 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 “왜냐하면, 나는 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모양과 속도와 성향이 다 달라요.

그걸 비교하는 건 하나님의 작품을 평가절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비교는 불공평하고, 무익하며, 관계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 배우자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결혼은 위험한 길로 들어섭니다.
- 자녀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상처로 가득 찹니다.

비교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각자 자기 행위를 살피십시오.  
그러면 남과 비교하지 않고도 자기 자신이 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 갈라디아서 6:4 [현대인의 성경]

Each one should test his own actions.  
Then he can take pride in himself, without comparing himself to somebody else.  
… Galatians 6:4 [NIV]

---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했어.”  
그럴 때 느끼는 건강한 자부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감사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자부심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로 비교 구문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만(pride)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비교는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절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을

“다른 가족과 비교해서 평가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서로를 축복하며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 기도제목 나누기”

**【나눔1】** 가정에서 대화를 얼마나 자주 하는 편인가요? (남편, 아내 또는 부모님과 자녀 등)  
일상적인 대화와 신앙적인 대화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눠주세요.

네/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 신명기 6:7

**【나눔2】** 가족을 바꾸고 싶을 때, 나도 모르게 ‘비판’이나 ‘잔소리’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보다 ‘본보기’로 보여줄 수 있는 변화의 영역은 무엇일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 베드로전서 3:1

**【나눔3】** 가족 중 누군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마음이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속도와 모양'을 인정하고 축복하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실천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

**【기도제목나누기】** 모임을 마치려 한다면, 서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좋은 가정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 3. 비 오는 날의 가정 ♦

---

‘좋은 가정’을 상징하는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비(rain coat)’입니다.

우비가 언제 필요할까요?

비가 올 때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바람이 불고, 천둥이 칠 때, 우리는 우비를 꺼내 입습니다.

왜 우비를 입을까요?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 자와 ○○○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 마태복음 5:45

---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비를 내리신다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폭풍이 옵니다.

감정적인 폭풍, 경제적인 폭풍, 도덕적인 폭풍, 육체적 질병의 폭풍,

그리고 관계의 폭풍까지…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우비’를 주셨습니다.

가족은 폭풍 속에서 입는 비옷입니다.

가족은 인생의 폭우를 막아주는 보호막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

… 전도서 4:9-10

---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이유는 혹시 그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불들어 일으켜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혼자 있으면 어떨까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꼭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아이가 폭풍을 겪고,

어떤 때는 엄마가, 또 어떤 때는 아빠가 폭풍을 겪습니다.

그럴 때 가족은 서로를 감싸 주어야 합니다.

**가족은 서로를 보호하는 우비입니다.**

가정이 서로를 보호해야 하는 세 가지 폭풍이 있습니다.

## **1. 첫 번째 폭풍은 ‘변화’입니다.**

삶에는 변화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잘 가던 길에 갑자기 큰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우리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곤 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요, 변화가 커다란 폭풍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시기에 서로를 제자리로 ‘정렬’시켜 주는 가족,

그게 건강한 가족입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큰 요철을 만나거나,**

도로 옆 콘크리트 턱 부분(curb)에 부딪히면 차축이 삐뚤어지게 됩니다.

차축이 삐뚤어지면 운전 중에 차가 한 쪽 방향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 ‘얼라인먼트(alignment)’를 맞춰야 합니다.

**가족도 똑같습니다.**

**큰 변화를 겪을 때는 가정의 ‘정렬’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상담(counseling)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전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상담은 좋은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충격을 경험한 뒤엔 외부의 시선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즉 제 3자의 코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 프로 가수에게는 보컬 코치가 있습니다.
- 프로 운동선수에게는 개인 코치가 있습니다.
- 큰 기업의 CEO에게도 경영 코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가정 코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 2. 두 번째 폭풍은 ‘해로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오늘날 수많은 해로운 사상과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18,000시간의 미디어 시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수천, 수만 건의 폭력 장면과 왜곡된 성(性)의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폭력, 욕망, 탐욕, 음란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모가 이런 걸 그냥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의 몸에는**

유기농, 글루텐 프리, 건강식만 먹이면서

정작 아이의 마음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요. 뭐 보고 싶은 거 보게 둬요.”

그건 존중이 아닙니다.

방임입니다.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몸의 건강만이 아니라 정신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에게 ‘보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해로운 생각들이 수많이 떨어지는 빗속에서 레인코트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쓰레기차처럼 아이의 마음에 끝도 없이 불순한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음란, 폭력, 탐욕, 조롱, 세속적 성공주의 …

그런 것들이 아이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아이의 영혼은 오염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통로를**

하나씩 점검하고 지켜 주는 것,

그게 진짜 보호입니다.

---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2**

---

### 3. 세 번째 폭풍은 ‘거절’입니다.

이건 누구나 언젠가는 겪게 되는 폭풍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폭풍보다도 가장 아픈 폭풍입니다.

누군가에게 버림받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그건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언젠가 거절의 아픔을 겪을 겁니다.

배우자도, 부모님도,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바로 가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비웃’이 되어 함께 울어 주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 큰딸이 고등학생 때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치어리더팀의 오디션을 보러 갔습니다.

연습도 열심히 하고, 기대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다 합격했는데, 큰 딸만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체격이 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자기 방으로 뛰어 들어가더니 옷장 안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안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목사님 가족 다섯 명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하나씩 그 방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옷장 바닥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 아이 옆에서, 그냥 함께 울었습니다.

그때는 충고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음엔 잘될 거야” 같은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큰 딸에게는 정말 큰 상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분, 40분이 흘렀다고 합니다.

지금도 목사님은 가족은 그날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날, 우리는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비웃’이 되어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폭풍을 맞을 때,

“괜찮다”고 다독이거나 “울지 마라”라고 하지 않고

그저 옆에서 같이 울어 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로마서 12:15

---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바로 가족이 해야 할 일입니다.

위대한 가정은,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켜 주는 가정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것은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남편이 폭풍 속에 있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아내가, 아빠와 엄마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폭풍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족은 함께 모여 그 사람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 시편 71:9

---

이제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돌보는 역할이 바뀌는 시기가 옵니다.

어릴 땐 부모가 우리의 코를 닦아 주셨지만,

이젠 우리가 부모님의 코를 닦아 드려야 할 때가 옵니다.

그것이 가족입니다.

가족은 평생 함께 가는 겁니다.

가치나, 효율, 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 디모데전서 5:8

---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레인코드가 되면 좋겠습니다.

## “나눔의 깊이를 더하는 질문 + 기도제목 나누기”

【나눔1】 비가 오는 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있고 싶으신가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불들어 일으키려니와  
... 전도서 4:9-10

【나눔2】 최근에 가족 중 누군가가 내게 ‘비웃’이 되어 준 적이 있나요?

혹은 내가 누군가를 감싸 준 경험이 있나요? 그 경험이 주는 깨달음이나 감사가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 로마서 12:15

【나눔3】 세상의 해로운 사상과 이미지가 자녀(또는 가족)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도록,

이번 주에 내가 ‘영적 레인코트’로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균원이 이에서 남아나라  
... 잡언 4:23

---

【기도제목나누기】 모임을 마치려 한다면, 서로 기도제목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마치나요?】

•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

모임을 마칩니다.

\* 왜 기도 제목을 나누나요?

▶ 기도제목을 보고,

함께기도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중보기도팀에도 요청도 가능)

▶ 기도제목을 보고,

다음 모임에서 더 관심 있게 다가가 물을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을 보면

현재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 기도제목이

기도제목이 출석체크를 대신합니다.